

큐리어스 무료 자료

사업계획서 양식

정부지원사업 85억을 수주하며
쓰던 틀 그대로

6장 빈칸만 채우면 되는 양식

전문 실제로 채운 예시 한 벌

6년 직접 쓰고 발표해본 경험

큐리어스 대표 열정진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한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것만 알아두세요

사업계획서를 처음 쓰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글숨씨를 보는 서류가 아니라 **정해진 칸에 정해진 답을 넣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칸이 뭔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을 먼저 드립니다.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제가 6년간 직접 쓰고 발표하면서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심사위원이 찾는 것	떨어지는 사업계획서
누구의 어떤 불편인가	"많은 사람이 불편해합니다"라고만 씁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황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나	기능을 열 개 늘어놓습니다. 핵심 하나가 안 보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나	"광고와 구독으로"라고 한 줄 씁니다. 누가 얼마를 왜 내는지가 없습니다.

쓰는 순서 세 단계

1. **먼저 6장을 한 바퀴 채웁니다.** 다듬지 말고 아는 것만 빠르게. 한 시간 안에 끝냅니다.
2. **빈칸이 남은 곳을 봅니다.** 거기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글이 막힌 게 아니라 사업이 안 정해진 겁니다.
3. **뒤에 붙인 예시와 비교합니다.** 제가 큐리어스로 실제 채운 것입니다. 표현을 베끼지 말고 **얼마나 구체적인지**만 보세요.

공모사업에 낼 때는 **그 사업의 공식 양식**을 쓰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공식 서류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는 초안용입니다. 초안이 있으면 공식 양식은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1. 개요

1-1.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

왜 이걸 떠올렸나요. 내가 겪은 일이면 가장 좋습니다.

→

1-2. 해결하고 싶은 문제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불편한가요. 네 가지를 다 넣어야 합니다.

→

2. 무엇을 만드나

2-1. 서비스 이름과 한 줄 설명

이름 :

한 줄 설명 :

2-2. 이걸 쓸 사람 한 명을 그려보세요

"모든 사람"은 답이 아닙니다. 딱 한 명을 정하세요.

성별 / 나이 :

지금 어떤 상황인가 :

무엇에 관심이 있나 :

평소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 :

2-3. 핵심 기능 세 개

열 개 쓰지 마세요. 하나가 없으면 서비스가 안 되는 것부터 세 개만.

기능 1 :

기능 2 :

기능 3 :

3. 돈은 어디서 나오나

3-1. 수익 구조

누가, 무엇에, 얼마를 냅니까. 수강료, 구독료, 수수료, 광고, 제휴 같은 것입니다.

→

3-2. 이미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더 좋습니다"는 답이 아닙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씁니다.

비슷한 서비스 :

우리만 하는 것 :

3-3. 단계별 계획

1단계 (작게 시험해보기) :

2단계 (돈 받기 시작) :

3단계 (넓히기) :

4.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나

4-1. 만드는 방식

직접 만드나요, 맡기나요, 아니면 이미 있는 도구를 쓰나요.

→

4-2. 꼭 있어야 하는 것

1:

2:

3:

5. 어떻게 알리나

5-1.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고객이 속으로 하는 말을 따옴표를 써서 그대로 적어보세요.

→

5-2. 어떤 느낌으로 말할까

말투 :

꼭 전할 말 :

어떤 형태로 (글, 영상, 사진 등) :

5-3. 어디에 알릴까

채널 :

방법 :

6. 목표

6-1. 꼭 이루고 싶은 것

기간과 숫자를 같이 넣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안에 돈 내는 회원 50명".

→

6-2.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만 씁니다. 셀 수 없으면 목표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목표 1 :

목표 2 :

목표 3 :

여기까지 채우셨다면 이미 절반은 끝났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제가 큐리어스로 실제 채운 것입니다.

채운 예시: 큐리어스

사실 이건 영업 기밀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아 풀어드립니다.

1-1.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

많은 중장년이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해합니다. 기존 플랫폼은 젊은 세대 중심이라, 중장년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2. 해결하고 싶은 문제

50대에서 70대 사용자들이 "내가 해본 걸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은 있으나, 콘텐츠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고, 디지털이 어렵고, 또래와 연결될 곳이 없습니다. 큐리어스는 이 간극을 메우려 합니다.

2-1. 서비스 이름과 한 줄 설명

이름 큐리어스 (Curious)

한 줄 설명 경험 많은 중장년이 서로 배우고 나누는 지식 커뮤니티 플랫폼

2-2. 이걸 쓸 사람 한 명

성별 / 나이	여성 / 50세에서 68세
지금 상황	자녀 교육이 끝났고, 새로운 활동을 찾고 있음
관심사	콘텐츠 만들기, 강의 개설, 내 이름으로 무언가 시작하기
평소 하는 것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 시청,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2-3. 핵심 기능 세 개

- **기능 1** 어울림 개설 기능 (강의와 모임을 직접 열 수 있게)
- **기능 2** 내 콘텐츠를 올리고 소개할 창구
- **기능 3** 후기를 남기면 보상이 가고, 노출이 늘어나는 구조

3-1. 수익 구조

리더가 여는 강의와 모임의 수수료,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강의 수익, 기업과 지자체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3-2. 이미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

비슷한 서비스 성인 교육 플랫폼들

우리만 하는 것

- 중장년 크리에이터를 중심에 두고 운영합니다
- 청년 기획팀이 콘텐츠 기획과 홍보를 직접 도와줍니다
- 실명 후기와 오프라인 만남을 중심에 둡니다
- 구독 없이 한 번 결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3. 단계별 계획

- **1단계** 최소한의 기능만 만들고, 리더 몇 명과 어울림을 시험합니다
- **2단계** 직접 운영하는 강의를 늘리고, 후기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합니다
- **3단계** 공공기관과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4-1. 만드는 방식

자체 개발팀이 웹으로 만들고, AI를 붙여 콘텐츠 평가와 보상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4-2. 꼭 있어야 하는 것

- 어울림을 열고 신청받고 정산하는 기능
- 후기를 등록하고 자동으로 정산하는 기능
- 콘텐츠를 AI가 평가하고 보상을 주는 기능

5-1.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겪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첫 시도에 대한 따뜻한 응원입니다.

5-2. 어떤 느낌으로 말할까

말투 정중하고 따뜻하게, 꾸미지 않고

꼭 전할 말 두 번째 인생, 나눔, 시작, 용기

형태 리더 인터뷰, 후기, 짧은 영상, 이메일 편지

5-3. 어디에 알릴까

채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뉴스레터

방법 후기를 모으는 캠페인, 리더 인터뷰 연재, 기업과 지자체 공동 홍보

6-1. 꼭 이루고 싶은 것

신규 어울림 리더 100명, 직접 운영 강의 월 매출 2천만 원입니다.

6-2.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

- 가입자 수
- 어울림 후기 건수
- 리더가 강의를 다시 여는 비율

여기서 하나만 보세요. 제가 쓴 답들이 유별나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구체적입니다. "중장년이 불편해합니다"가 아니라 "50대에서 70대가, 경험은 있는데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라고 씁니다. 그 차이가 심사에서 갈립니다.

많이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지 한 사람을 정해서 씁니다
기능을 열 개 넘게 나열	세 개로 줄입니다. 하나가 빠지면 서비스가 안 되는 것만
"광고와 구독으로 수익을 냅니다"	누가 얼마를 왜 내는지 씁니다. 금액을 넣으세요
"업계 1위가 되겠습니다"	기간과 숫자로 바꿉니다. 3개월 안에 유료 회원 50명
작년 양식이나 임의 양식으로 제출	공모마다 공식 양식이 다릅니다. 그해 공고문에서 내려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는 붙기 위한 서류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양식을 한 바퀴 채우고 나면 "내가 뭘 아직 안 정했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이 자료의 진짜 값입니다.

지원하지 않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채워본 것만으로 남는 게 있습니다.

만든 사람

큐리어스 대표 열정진. 약 6년간 정부지원사업을 직접 쓰고 발표해 85억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이 양식은 그때 쓰던 틀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다듬은 것입니다.

이 자료는 무료로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분께 그대로 전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기 이름을 붙여 파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